

복합경제 위기...“해외 판로 다변화로 극복해야”

경제단체·기관, 대·중소기업 제도약 지원정책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전략이 시급대에 올랐다. 미국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체계적인 대응과 수출시장 다변화의 시급성이 강조된다. 광주·전남지역 대표 경제단체들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외 판로 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에 본보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과 밀착 지원 등 지역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내용 등을 정리한다.

광주 경영자총협회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집중한다. 앞서 광주경총은 ‘지역일자리 토털 패키지’로 매칭·장려금·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인재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 바 있다. 올해도 지역 내 뿌리 산업을 고용상황, 인력수요 등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춰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원요건을 완화 또는 지원수준을 상향하는 등 우대해 지원하는 지역일자리사업을 펼친다. 해당 사업은 뿌리 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려금도 지원한다. 또 지역 내 주력산업 기반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통한 지역 인력난 해소와 선제적 일자리

주력산업 기반 맞춤형 일자리 매칭

중장년 재취업 기회 ‘내일센터’ 운영

자금난 기업에 낮은 금리 자금 조달

수출상담회 등 현장 밀착형 무역지원

리 창출 대응 및 장기근속을 도모한다.

더불어 광주경총은 중장년층의 재취업 기회를 도와 다시 한번 활기찬 직업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중장년 내일센터’ 운영도 이어간다.

인력,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사업자 사망사고 감축 및 자발적 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고용하기 어려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지원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한다.

안전보건교육훈련 지원,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역량 강화 지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경영자 리더십 개발, 근로 참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광주·전남 테크노파크,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 등 지역 내 산업경제 전문기관들도 중소기업 지원에 팔을 걷었다.



지역 대표 경제단체들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상공회의소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에 낮은 금리의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연간 180억원 규모의 금융자원을 통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광주상의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를 통해 전국 공공·민간 시설, 용역, 물품, 매각 입찰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내 기업 입찰 및 조달 운영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공공조달 실무교육, 조달업무 숙련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광주지역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FTA 미활용기업 발굴 및 영세기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FTA 활용 활성화 및 지역 수출 경쟁력을 견인한다.

중점 업종 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원산지 증명서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통한 상담과 컨설팅도 진행한다.

광주 테크노파크

광주 테크노파크는 현장 밀착형 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기업 애로사항 접수·상담·처리 창구를 상시 운영하며 맞춤형 기업 진단 및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해 지원한다.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초기 창업자를 발굴해 지원도 이어간다.

창업 초기 기업들의 창업 성공을 위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비롯해 전문가 네트워크 그룹 구축 등 체계적인 후속 지원을 통해 창업자 욕구에 나선다.

지역 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한 기업 생산성 향상, 제조 경쟁력 강화도 앞장선다. 이밖에도 인건비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 지원을 비롯해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들을 발굴해 지역 청년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전남 테크노파크

전남 테크노파크도 지역 기업의 성장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남 TP는 기술 경쟁력 확보부터 사업화·판로 확대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단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기술 개발(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등) 및 장비 지원, 사업화 지원, 판로 및 수출 지원, 스마트 공장 구축, 일자리 연계 지원, 지식재산 지원, 시·도 지원 사업(시·군·구 연구사업 등)이다.

여기에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의 수출 중소기업들을 발굴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특히 일자리연계지원 사업 중 대학생 현장 실습을 통해 중소기업 실무형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또 전남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권리와 지원을 넘어 기업의 성장 단계별 수요에 맞춘 IP 전략 수립과 글로벌 사업화 연계에 중점을 둔다. 특히 올해는 기업 맞춤형 IP 포트폴리오 설계, 해외 진출을 고려한 권리화·브랜딩 전략 강화, 기술과 디자인을 연계한 IP 활용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의 무역 진흥과 무역 업계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도 지역 내 중소기업 성장 등에 손을 보탠다.

올해 협회는 지역 수출기업의 AI 활용 역량과 해외마케팅 경쟁력 강화, 해외 전시회·수출상담회·온라인 마케팅 등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밀착형 무역자원을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AI 기반 해외시장 분석, 디지털 마케팅, 바이어 발굴을 결합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글로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 광주 전략산업인 미래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모빌리티 기업들에 대한 수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그동안 각종 수출 지원 사업에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을 찾아가 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무역협회 회원사 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수출 지원 격차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또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성장 사다리’ 구축에도 힘쓰며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 및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수출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과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무역자원을 확대해, 기업들이 무역협회를 가장 가까운 파트너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경제 관계자는 “국내외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힘든 현실이다. 중소기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 경제단체들이 마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중소기업 전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y1404@gwangnam.co.kr

